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변화*

이 현 송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부 교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미국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폭이 넓어지면서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태도를 친미반미로 접근하는 기존의 인식들이 적합성이 떨어짐을 지적한다. 한국인은 이제 미국을 대등한 관계로 인지하고자 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미국을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인의 변화된 시각을 파악하는 대안으로 사회심리학의 대인관계 연구로부터 차용한 다차원적인 인식들을 제시한다.

대인적인 인식들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는 감정적인 측면이다. 미국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지칭한다. 둘째는 신뢰의 측면이다. 미국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여부이다. 셋째는 필요성의 측면이다. 한국에게 미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이다. 넷째는 경험과 인지의 측면이다. 미국을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경험하였으며 미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를 지칭한다. 다섯째는 평가의 측면이다. 미국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 지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측면은 서로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다차원적 인식들을 적용하여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결과 한국인은 미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반면 미국에 대한 신뢰는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미국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다. 미국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여 반드시 신뢰를 더 두지는 않는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 대한 선호와 미국에 대한 신뢰는 독립적인 개념으로 보인다. 세 개의 코호트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근래로 오면서 미국에 대한 선호도, 신뢰, 평가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반미, 반미주의, 미국, 한미관계

* 본 연구는 2015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서론

요즈음 한국인에게 “미국을 좋아하는가?” 혹은 “미국을 좋게 생각하는가?” 하고 물으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답을 얻기 어렵다. 아마도 1970년대에 이런 질문을 했다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별 주저 없이 긍정적으로 대답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1980년 광주항쟁 이래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태도가 점차 변하여 이제 전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데 동의한다(이강로, 2004; 김진웅, 2010; Gweon, 2004).

그렇다고 “미국을 싫어하는가?” 혹은 “미국을 나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한국인은 많지 않다. 2000년대 초반만 하여도 효순이 사건이나 오노 심판의 부당한 판정 등으로 반미 감정이 고조되었지만, 이제 한국 사회에서 ‘반미’는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다. 요즈음 대다수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감정은 아마도 ‘전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싫지도 않다’는 정도로 요약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과거에 흔히 거론되던 ‘친미·반미’라는 이분법적인 인식틀은 더 이상 한국인에게 쓸모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이다.¹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국내 혹은 해외의 조사기관에서 근래에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조사한 경우는 과거보다 훨씬 드물다. 미국에 대한 감정이 과거보다 중립적으로 되었다고 하여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 것은 아니다.² 한국은 미국과 여러 면에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국의 언론은 항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한국인은 미국에 대해 자기 나름의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
1. 한국인의 대미 인지와 관련하여 친미와 반미의 양분법적인 인지를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은 근래에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Hwang, 2004; Ham, 2005).
 2. 일부 연구자들은 미국에 대한 태도와 미국인에 대한 태도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예는 퓨 리서치의 조사이다(Pew Research). 미국인에 대한 태도는 미국에 대한 태도보다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대체로 함께 움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뭉뚱그려서 논의한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태도가 소위 ‘친미·반미’의 구도에 의해 파악되기 어렵다는 인지 하에, 한국인이 미국에 대해 생각하는 대안적인 인식들을 탐색한다. 다음에서는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또 왜 변했는지를 검토한 후, 현재의 상태에서 이를 가장 적절히 파악하는 인식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여론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인식들을 적용한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새로운 인식들을 적용할 때 기존의 ‘친미·반미’의 인식들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유용하며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검토한다.

II.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태도 변화의 역사적 검토

1. 1970년대까지 미국에 대한 태도

한국이 미국과 접촉한 것은 19세기 말로 올라가지만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전될 때까지 대부분의 한국인은 미국이란 존재를 거의 인지하지 못하였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한국인은 외국 세력에 대해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1950년대 후반까지 한국인에게 미국은 긍정과 부정이 뒤섞여 있다. 20세기 초반 미국이 일본과 비밀 협약을 통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배를 용인했던 사실,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에 의지해 일본의 식민 통치의 부당성을 호소하려했던 시도가 미국의 외면으로 무산되었던 사건, 한국전쟁의 정전 조약 당사자인 미국이 남북 분단을 용인한 사실 등은 한국인에게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다(Lew, 2004). 반면 미국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종식시키고, 한국전쟁으로 남한이 공산화될 위기를 미군의 힘으로 막아낸 것은 한국인이 미국에 대해 감사를 느끼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20세기 중후반 미소 간 냉전체제에서 미국의 군사적 보호 속에 한국이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었고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점 역시 한국인이 미국에게 감사하는 근원이다(이강로, 2004).

이러한 미국의 보호는 이점과 함께 문제점도 안고 있는 양날의 칼이다.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이 한국의 독재정권을 정치경제적으로 지지한 것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는 이점이 있으나 민주주의의 정착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 정치적 정당성을 결핍했던 박정희 정권은 경제 발전에 주력하여 국민의 민주주의의 요구를 잠재울 수 있었다. 한국인들은 극도로 가난했으므로 정치적 자유보다 빵을 우선적으로 찾았다. 사람들은 빵을 가져다주는 경제발전을 선두에서 추진한 독재정부의 뒤를 받쳐준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한국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든든히 의지할 수 있는 큰형으로서 미국을 떠받들었으며,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선진 물질문명에 대해 감사와 부러움을 아끼지 않았다(Joo, 2004; Ham, 2005).

문제는 한국인의 생활이 나아지고 독재의 문제점에 눈이 가면서 이것의 뒤를 봐주던 미국에 화살이 돌아가게 된 것이다.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은 1980년 전두환 장군이 전방의 군대를 광주로 이동시켜 양민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다. 정당성이 결핍한 전두환 정권에 대해 미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히 인정하는 조치를 취한 것 또한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

이것이 냉전체제에서 미국의 외교적 이익을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였다고 해도 박정희 독재정부가 물러나고 민주화의 열기가 높았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한국인에게 주는 충격은 매우 컸다. 미국을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생각했던 한국인에게 국민에게 큰 희생을 강요하고 들어선 독재정권을 신속히 인정한 점은 그간의 미국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들은 광주항쟁을 계기로 한국인이 본격적인 반미의 감정을 품게 되었다고 지적한다(이강로, 2004; 김진웅, 2010; Jung, 2010).

2. 1980년대 이후

1980년대 이래 다수의 한국인들이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서로 어

긋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냉전체제에서 미국의 국익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면서 미국에 순종하는 정권이 한국에 집권하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 발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순종하며 공산주의를 반대한 한국의 군부 정권은 독재와 폭력으로 얼룩진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민주적인 정치로 변화하기를 바랐으나, 미국은 독재정권을 연이어 지지함으로써 한국인의 머릿속에 친미와 독재의 연관이 형성되었다. 미국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독재 정치가 연결되어야 할 논리적인 근거는 없으나, 독재 정권이 부족한 정당성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거듭 강조하고, 미국은 거꾸로 그러한 독재정권을 굳게 지지함으로써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미국에 대한 지지와 독재 정권사이에 연관이 생겨난 것이다(Gweon, 2004; Cumming, 2005). 이는 거꾸로 한국 정치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반대와 연관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은 소비재의 수출을 시작으로 자동차와 철강 등 중화학공업의 수출이 1980년대 이래 점차 증가하였으며, 미국은 한 때 한국의 대외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교역국이었다. 1960년대의 한국의 경제가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다면, 197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 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전략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대미 수출이 급증하고 '80년대 후반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가 커지면서 1990년대 초반 미국과 무역마찰을 빚게 된다. 이후 미국의 기업들은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한국 기업에 대해 공격적으로 개방 압력을 행사하였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은 그 당시까지 한국인의 머릿속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던 ‘시혜적인 형님’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Ham, 2005). 미국처럼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우방인 한국에 대해 대등한 개방과 공정한 경쟁을 요구한 것은 한국인에게 미국을 다시 보게 하였다.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한 연이은 시장 개방 압력은 한국의 기업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 과정 속에서 한국인은 미국도 한국과 동일하게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주체에 불과함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을 위해 너그럽게 퍼줄 수 있는 큰 형님으로 생각하던 미국에 대한 환상은

깨졌으며, 경제에 관한 한 한국은 미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 깨달음이 자리 잡았다.

1990년대 중반에 터진 북한의 핵무장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 또한 한국인에게 미국에 대한 환상을 깨는 계기를 제공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는 주변으로 밀려났다(Larson, et al., 2004; Moon, 2005). 북한의 핵무장 제거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최우선 목표이나, 한국인에게는 평화와 통일이 한반도의 비핵화보다는 우선순위에 있다. 북한의 핵무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접근이 한국인의 관심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을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을 지켜보면서 많은 한국인이 깨달았다.

2004년에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 다시 벌어졌을 때, 부시 대통령 역시 한국을 제쳐 놓고 북한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때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안을 검토했는데, 이는 한반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전쟁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한국인들은 미국을 신뢰할 수만은 없는 우방으로서 새삼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인은 지금까지 고생하여 이룬 번영을 전쟁을 통해 송두리째 잃는다는 시나리오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미국이 그러한 방안을 고려했다는 사실은 한국동란을 경험한 나이든 세대에 계까지도 미국이 우리와 이익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게 만들었다(Park, 2007; Ham, 2004).

3. 한국의 변화로 인한 대미 태도의 변화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태도가 변화한 데에는 한국 쪽의 요인이 크다.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의 민주화이다(Kim and Lee, 2011; 심양섭, 2010). 1987년 대통령 직접선거를 계기로 한국의 정치는 형식적 민주화를 달성하였다. 군부의 정치 개입과 독재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한국인의 마음속에서 정치적 안정과 독재 정권의 등식은 깨지게 되었으

며, 독재 정권이 주창하던 친미·반공 이념의 설득력이 약화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햇빛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공의 국시를 일시적으로 내려놓았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친미 외교 대신 독립적인 외교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친미·반공을 국시로 하고는 있으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국민의 지지를 정권의 기반으로 하므로, 미국의 뒷받침이나 반공 이념을 정권의 정당성 자원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덜하다. 군부정권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켰던 논리인 미국의 군사외교가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대신에, 미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실리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시각이 민주화된 정치를 경험한 한국인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둘째는,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어긋나는 사건이 빈발하였다(Larson, et al., 2004). 이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서 한국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면서 명백해졌다. 1998년의 외환위기는 미국이 주도하는 IMF가 한국에 대해 가혹한 구조조정을 강요하면서 중산층까지 실직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해야 했다. 이는 미국의 자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경제 질서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를 부수기에 충분한 충격이었다. 이 와중에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민족주의 운동을 통해 대외의 압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국민감정이 고조되었다.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질서에 회의를 품게 만들었다.

군사외교 분야 또한 미국과 한국의 이익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2001년 9·11 테러 사건은 한국인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으나, UN의 절차를 무시하고 부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라크 침공에 한국군의 참전을 강요함으로써 한국인들에게 미국의 외교정책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중동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한국이 직접적인 적대관계가 아닌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한국의 무역에 타격을 입힐 것이 분명했다. 전국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참전을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났다.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표방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국익을 앞세워 이라크 전쟁에 참가하도록 국민을 설득하기는 했으나, 한국인들은 우리의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팔을 비틀어 억지로 우리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다고 생

각했다. 근래에 이란 경제제재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강요한 사건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란의 석유에 크게 의존하며 이란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우리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도 않는 이란에 미국의 강요로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사실은 한국인에게 미국의 질서에 동참함으로써 치러야 하는 대가에 거듭 눈뜨게 만들었다.

셋째, 한국 경제의 발전과 무역의 다원화이다. 한국이 가난하고 미국의 자본과 미국의 무역에 크게 의존했던 1970년대까지, 미국은 우리가 의지하고 배워야 할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한국이 절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고 1990년대 이래 한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가 점차 약화됨에 따라 미국에 대한 인식은 바뀌었다. 미국과 한국이 경제적 이익에서 충돌하고 두 나라의 기업들 간에 경쟁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약화된 반면 2000년대 들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높아졌다. 그 결과 한국은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더 크게 의존하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 관계에 놓이면서 한국인은 과거와 같이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미국 편에만 붙어 있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을 직시하게 되었다.

넷째, 한국인이 미국과 미국인을 많이 경험하고 잘 알게 되었다. 한국인 중 외국에 여행하거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지면서 미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대체되었다. 한국인이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도 하면서, 미국의 강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문제에 인식이 높아졌다.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사회의 인종주의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한국인도 많아졌다. 미국 대중문화의 부작용에 한국인이 눈뜨게 되었으며, 대중문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획득된 이미지의 허상을 확인한 사람들도 늘어났다. 1990년대 중반 이래 미국에 이민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이민 현상이 증가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대미 인식의 결과이다. 즉 미국과 미국 문화에 대해 막연하게 동경하던 감정에서 벗어난 한국인이 늘어난 것이다(Jung, 2010).

III.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인식의 다원화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과거의 환상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듯하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혹은 혈맹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반공 이념과 보수주의를 강력히 옹호하는 일부를 제외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국민에게 과거와 같은 설득력을 가지지는 못한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과 미국의 국익이 불일치하는 상황을 거듭 경험하면서 한국인은 미국이 한국의 생존에 중요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만은 없는 상대로 인식을 변화해가고 있다.

이는 한국인의 세대 변화와도 연관된다. 한국전쟁의 고통을 경험한 세대의 머릿속에는 한국을 구원한 존재로서 미국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남아 있다. 반면 독재정권과 민주화 과정을 경험한 세대(소위 386세대)의 경우 미국에 대한 신뢰는 그리 크지 않다. 이들은 미국이 독재정권의 뒤를 받쳐주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광주항쟁에서 미국의 방관적 자세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뒤이어 1990년대 경제성장의 결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는 미국에 대해 감정적으로 진 빛이 없으므로 일방적인 호불호의 시각보다는 객관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자세를 요구하는 젊은 세대는 주한 미군의 잘못에 대해 쉽게 용인하지 않으며, 미국과 한국의 이익이 불일치 할 때 한국이 굽히고 들어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목소리를 높인다(Gweon, 2004). 이들은 미국에 대해 근본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지 않은 세대이며, 사안에 따라 미국에 반대한다. 이들은 다양한 직간접 경험을 통해 앞의 세대보다 미국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기에 환상에서 자유롭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격동적인 현대사 속에서 한국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경험에 따라 미국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인다.

한국인의 다수는 미국에 대하여 과거 감정적인 의존을 벗어나 객관적인

인식으로 이전하고 있다. 미국의 산물과 대중문화를 여전히 선호하지만 과거와 같이 전적으로 긍정적이지는 않다. 미국의 패스트푸드의 편리성을 선호하지만 한편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표준화된 맛에 대해 상대적인 평가를 내린다. 과거에 미국제라면 물질적 및 문화적으로 고급과 고상함의 상징이었지만, 근래에 미국제는 가격에 비해 품질이 좋지만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한국인에게 미국은 군사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존재이지만, 미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분의 1에 못 미치므로 과거와 같이 미국의 존재가 한국 경제의 생사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북한과의 대치상태에서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미래에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고 많은 한국인들은 생각한다(Kim and Lee, 2011).

감정적인 선호에서 접근하는 반미·친미의 인식들은 한국인의 이러한 변화된 태도를 제대로 담기 어렵다. 반미·친미의 인식들은 미국 중심의 시각에서 설정된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태도를 검토하려 한다면, 미국을 좋아하는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대등하게 생각하는 한국인이 늘어나면서 일방적인 좋고 싫음으로 상대를 접근하는 인식들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Hwang, 2004). 미국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이 늘면 미국에 대해 한마디로 복합적인 감정과 생각을 담아낼 수 없다. 사안에 따라 미국의 어떤 면은 좋아하지만 다른 면은 싫다거나, 미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신뢰하지는 않는다거나, 미국의 어떤 면은 본받을만하지만 다른 면은 그렇지 않다거나, 어떤 면은 미국이 낮지만 다른 면은 다른 선진국이나 혹은 우리의 것이 낮다는 등등 복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늘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태도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한다. 단일 차원으로 파악하는 것이 간단하고 편리하기는 하지만, 태도나 의견이 복합적일 경우 이는 진실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단일 차원으로 파악하는 것의 한계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국가 간의 태도를 다차원으로 측정하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시범적으로 미국에 대해 한국인이 가지는 태도를 다음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파악한다. 이는 사회 심

리학에서 대인간의 태도를 분석하는 모델을 차용한 것이다(Maio and Haddock, 2009: 89-152). 국가 간 사람들의 태도는 대인간의 태도와는 다른 성격이지만 국가 간의 태도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시험적인 시도로 의미가 있다. 다음에서 각 차원에 대한 서술과 이러한 차원을 설정한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감정의 차원. 이는 미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혹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의 측면으로, 기존에 친미·반미의 인식들에 가장 근접한 차원이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의 측면이 복합되어 있다. 하나는 ‘상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이며, 다른 하나는 ‘상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이다. 상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싫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의해야 할 점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정도의 문제이지 단순히 가부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상대를 매우 좋아하는 것과 약간 좋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상대를 좋아하는지 혹은 싫어하는지 여부는 대인 관계를 규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속성이다. 국가 간의 태도를 파악할 때에 상대에 대한 선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측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신뢰의 차원. 상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의 측면이다. 신뢰의 차원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의 신뢰는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반영한다. 긍정적인 신뢰는 ‘나에게 위협이 닥칠 때 상대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상대가 나를 공정하게 대우하는지’ 등을 반영한다. 대인관계에서 보면 상대를 좋아한다고 하여 반드시 신뢰를 두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상대를 신뢰하면 좋아할 가능성이 크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상대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지만 신뢰할 수 있다. 신뢰의 수준이 낮을 때에는 조그만 오해가 큰 불화로 확대될 수 있는 반면, 신뢰의 수준이 높을 때에는 쉽사리 오해나 불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대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되며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좋아하는가 여부보다는 신뢰하는가 여부가 함께 일을 추진하는 데에는 보다 더 중요한 속성일 수 있다.

신뢰라는 대인관계의 속성을 국가 간의 태도를 측정하는 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을 적용한

다면 국가 간에 신뢰를 운운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각 나라는 각자 집합적 이익에 따라 행동하므로 서로간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인격의 주체인 자연인 사이의 관계의 속성인 신뢰의 개념을 적용할 때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정의한 긍정적 및 부정적인 측면의 신뢰가 높을수록 국가 간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가 간 태도의 척도로서 신뢰라는 차원은 유용할 것이다.³

셋째, 필요성 혹은 중요성의 차원.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하다(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문제이다. 상대를 군사·외교적으로 및 경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를 좋아 하는지 혹은 상대를 신뢰하는지 여부와는 별도의 문제이다. 한국인은 미국, 일본, 중국 모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들에 대한 선호나 신뢰의 정도에는 차이가 크다.

상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대인간은 물론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주요 요소이다. 상대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상대를 좋아하는지 여부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예컨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탄이란 나라가 한국에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 나라에 호의적인 감정을 가진 한국인을 생각할 수 있다. 부탄은 한국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에 한국인의 부탄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미국은 한국에게 워낙 중요한 나라이기에 이러한 차원에 대해 특별히 생각을 하지 않지만, 미국이 한국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부는 양분법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정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미국이 한국에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이견을 보이며, 이는 미국에 대한 선호나 신뢰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경험과 인지의 차원. 상대를 얼마나 경험하였으며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여부이다. 과거에 대다수의 한국인은 미국을 거의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으며 미국과 미국인에 대한 지식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상대

3. 김의철과 그의 동료들은 심리화적인 측면에서 개인이 타인에 대해 가지는 신뢰의 개념을 사용하여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측정하였다(김의철 외, 2003).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및 경제적 관계를 반영하는 신뢰의 개념을 설정하였으므로 김의철의 연구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뒤에 언급하듯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서 두 연구는 비슷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에 대한 관심이 높고 상대를 잘 알게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친밀해지지만 동시에 객관적인 시각도 발달한다. 상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상대에 대한 선호의 감정은 피상적인 편견에 머물기 쉽다.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바로 이러한 수준이다. 미국의 일반 사람은 한국에 대해 거의 관심이나 지식이 없으며 한국이 지도상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지적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이현송, 2004). 이러한 미국인에게 한국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묻는다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한국을 꼭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한국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인이 한국에게 중요한 존재이듯이, 한국인이 미국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다섯째, 평가의 차원. 상대의 수준을 평가하는 측면이다. 상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할 때에는 피상적인 인상과 전통적인 편견에 의지하지만, 상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높아지면서 상대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분석적이며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인이 미국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이렇게 미국의 다양성을 나누어 평가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인에게 미국이 어떤지를 묻는다면, 어떤 면은 수준이 높지만 다른 면은 수준이 낮다고 답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과거 한국이 모든 면에서 열악했을 때 미국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매우 우수하다는 의견이었으나, 다른 선진국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높아지고 한국이 발전하면서 미국의 다양한 측면을 나누어 비교 평가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다섯 가지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감정적인 선호라는 하나의 차원으로 접근할 때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정확하게 관계의 속성을 포착할 수 있다. 이 다섯 개의 차원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개념이다. 예컨대 미국을 좋아하면 신뢰할 가능성이 높지만 감정적 선호와 신뢰는 별개의 문제이다.

IV. 분석 방법과 자료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다섯 가지의 차원으로 구분한 인식틀을 적용하여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라는 기관에서 2008년에 수행한 “Soft Power in Asia Survey” 중 한국의 자료를 활용한다. 이는 미국 및 아시아의 4개국(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대해 국제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조사한 자료이다.⁴ 이 자료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조사한 것으로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태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가장 최근 자료이다. 한국의 조사는 동아시아연구원에서 담당하였으며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확률표집 방식을 적용하여 면접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분석에 사용한 유효 표본 수는 1,029명이다.

다섯 가지 차원에 대한 척도는 조사 설문지의 범위 내에서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여 복합 척도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차원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 대한 감정의 차원은 “미국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매우 냉담”(-5)에서 “매우 우호적”(+5)까지로 측정하였다.⁵ 상대를 좋아하는지 여부는 이와 같이 직설적으로 물어봄으로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미국에 대한 신뢰의 차원은 “미국이 앞으로 한국에게 군사적 위협이 될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우려하십니까?” 및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위하

4. 이 조사는 2002년부터 2년 간격으로 실시되었으며, 2008년은 이 조사가 실시된 마지막 해이다. 9·11 사태가 촉발한 반미주의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이 퇴조하면서 예산이 삭감된 결과이다.
5. 원래의 설문지에서는 “매우 우호적”이면 100점, “매우 냉담하다”이면 0점, “그저 그렇다”이면 50점으로 측정을 하였다. 참고로 미국의 퓨 리서치 조사나 갤럽 조사에서는 외국에 대한 우호도 조사에서 우호적인 측면과 비우호적인 측면을 별도의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좋아하는 것의 반대가 반드시 싫어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렇게 별도의 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여 효율적으로 기여했는가?”라는 두 개의 문항을 복합하여 측정하였다.⁶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신뢰는 군사외교적인 성격이 크다. 첫 번째 문항은 부정적인 측면의 신뢰, 즉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면을 측정한다. 두 번째 문항은 긍정적인 신뢰 즉 ‘나에게 위협이 닥칠 때 상대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는 면을 측정한다.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군사외교적인 신뢰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미국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다. 근래에 한반도 안보의 큰 문제인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미국이 효율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을 측정하는 것은 한국인의 안보 불안의 핵심을 건드린다는 면에서 신뢰를 측정하는 타당한 척도이다.

셋째, 필요성의 차원은 군사적인 필요성과 경제적인 필요성의 두 측면을 복합하였다. “귀하께서는 주한미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에 대해 ‘주한미군은 한국에 영구적으로 주둔해야 한다’는 답변에서 ‘주한미군은 즉각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답변까지의 미국의 군사적인 필요성을 측정하였다. 경제적 필요성은 “무역과 투자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넷째, 경험과 인지의 차원은 한국인이 미국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직간접적으로 미국을 경험했는지를 다음의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귀하는 얼마나 자주 미국의 영화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들습니까?” 및 “귀하는 미국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는 문항이다.

다섯째, 평가의 차원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과학기술의 다섯 가지 측면에 대해 각각 측정한 뒤 이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평가 점수를 산출하였다. 경제는 “미국은 경제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와 “귀하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두 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정치는 “미국은 국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사회는 “미국은 일할 수 있는 자기나라 국

6. 두 개의 문항을 합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군사적 위협과 핵무기 위협 변수는 각각 1~4의 값을 갖는 척도로 조사되었다. 두 문항의 산술 평균을 구하여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이 -3와 +3의 이론적 최대값을 갖도록 조정하였다.

민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가?” 및 “미국은 국민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가?”의 두 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화는 “미국은 매력적인 대중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및 “미국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가?”의 두 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은 “미국은 선진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및 “미국에는 높은 수준의 대학이 있는가?”의 두 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렇게 다섯 개 측면에 대하여 각각 점수를 낸 다음 평균을 취하여 평가의 차원을 측정하였다.

다섯 개의 차원을 구성하는 개별 지표는 이론적인 최대·최소값을 설정하여 표준화를 하거나 혹은 표준화 점수(Z-score)를 구하여 산술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복합척도의 값을 계산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개별 지표간의 분포의 차이로 인한 왜곡을 완화시키고 비교를 용이하게 하였다.

한국인의 대미 태도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 변수로 연령, 교육 수준, 이념 지향⁷⁾이 사용되었다. 연령이 높으면 미국에 우호적이고 신뢰할 가능성이 크며, 보수주의적 이념 지향을 가진 사람 또한 그러하다. 반면 교육 수준이 높으면 반드시 미국에 전적으로 우호적이거나 신뢰를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미국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잘 알고 있으므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단일 시점의 조사 자료를 사용하므로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태도 변화를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앞의 역사적 검토의 절에서 살펴봤듯이,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태도 변화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두 시점 이상의 조사를 통해 변화를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인 방편으로 세대 간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한국의 근대사에서 중요한 경험을 공유하는 코호트(출생 집단)를 구분하고, 이 집단들 간에 미국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밝혀낼 수 있다면 간접적으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코호트를 비교하여 변화를 확인하려 할 경우 ‘연령 효과’(age effect)를 어

7. 교육 수준은 중졸이하(1)에서 대학원졸 이상(6)으로 졸업 여부에 따라 여섯 개 범주로 구분했으며, 이념 지향은 매우 진보(1)에서 매우 보수(5)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땡계 ‘시기 효과’(period effect)와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이 장년이나 노년층보다 진보적일 가능성이 크므로, 한 시점만을 잘라서 단면을 들여다보았을 때, 젊은 사람이 노년층보다 미국에 대해 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것이 반드시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인의 태도가 변해왔다는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의 노년층은 과거 젊은 시절에 현재보다 더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고, 그들이 미국에 대해 현재보다 과거에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요컨대 코호트 집단 간의 차이가 단순히 연령의 차이에 따른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만 시간의 변화에 따른 차이를 추론할 수 있다.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보다 미국에 대해 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다른 나라의 경우를 검토하면 옳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다음의 <표 1>은 미국의 조사기관인 퓨 리서치가 세계의 다양한 나라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연령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이다. 표에 제시된 나라는 세계의 모든 지역에 속해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모두 망라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 모두에서 젊은층(18~29세)은 50세 이상 장년층보다 미국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라에 따라 미국과 맺은 관계나 미국과 연관되어 그동안 발생한 사건들이 다를 것이므로 이 모든 나라에서 일관되게 동일한 시기 효과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이 모든 나라에서 젊은 연령층은 노년층보다 미국을 더 선호하므로 미국과 관련해 연령효과가 작용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미국을 ‘덜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밝히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연령효과와는 정반대의 것, 즉 현재 나이가 든 사람이 젊은 사람들보다 미국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가설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 가설에 부합하는 현상을 발견한다면 연령효과보다는 시기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즉 다른 나라에서는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보다 미국에 더 긍정적인 데, 한국의 경우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보다 미국에 덜 긍정적이라면 이것은 연령 때문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과는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이가 든다고 해도 현재의 나이든 사람과는 다른 태도를

〈표 1〉 미국에 대한 선호도 국제 비교, 2013(단위: %)

국가	연령			선호도 격차 (B-A)
	18~29(A)	30~49	50+(B)	B-A
터키	38	16	8	-30
중국	50	41	27	-23
말레이시아	64	55	43	-21
아르헨티나	49	42	32	-17
멕시코	73	64	63	-10
브라질	79	72	66	-13
이탈리아	84	79	70	-14
독일	64	50	51	-13
영국	69	56	57	-12

자료: Pew Research Center Report, 2013(p.11 표에서 일부 발췌함).

미래에 가질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을 세 개의 코호트(출생 집단)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1958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로 2008년 조사 당시 51세 이상의 연령층이다. 이들은 한국 전쟁이 초래한 극심한 혼란과 빈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으며, 1980년 광주항쟁 이전에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1960년대 이래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 집단은 1958년에서 1980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로 조사 당시 28~50세이다. 이들은 유년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했으나 이후 경제발전의 수혜를 입었으며, 1980년 광주항쟁과 1987년의 민주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다. 세 번째 연령집단은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로 조사 당시 19~27세이다. 이들은 앞의 세대와 달리 유년기에 절대적인 빈곤의 경험이 없으며, 광주항쟁이나 민주화 투쟁의 기억이 전혀 없다. 또한 이들은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1990년대에 성인기에 들어섰으며, 성장하면서 1988년 올림픽이나 1994년 OECD 가입 등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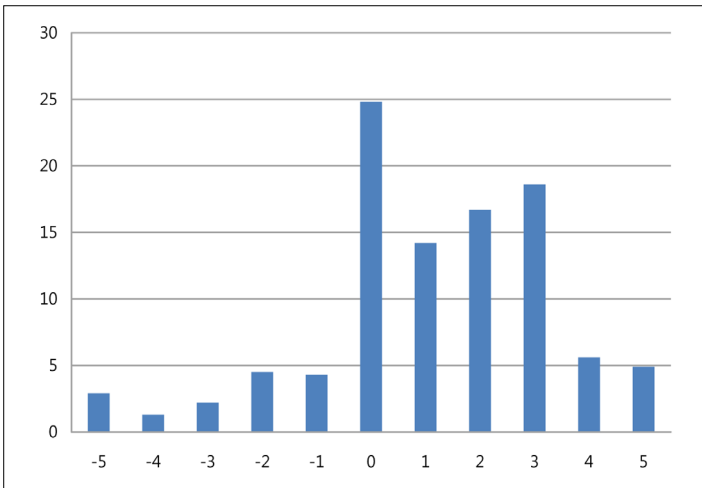
이러한 세 개의 집단의 경계에 근접한 사람들은 앞 혹은 뒤의 집단과 경험이 엄격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 개의 집단은 대체적으로 서로 상

이한 성장 경험을 했다. 집단 간 비교가 유의미한 정도의 최소 표본 수가 각 집단에 배속되도록 균형을 맞추어 구분하였다. 각 집단의 사례 수는 각각 323명(31.4%), 529명(51.4%), 177명(17.2%)이다. 이러한 세 개의 연령 집단이 다섯 가지의 태도 차원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함으로써 시기에 따른 태도 변화를 추론하려고 한다.

V. 한국인의 대미 태도에 대한 분석 결과

1. 다섯 개의 태도 차원의 비교

한국인이 미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선호와 관련하여 친미·반미의 인식들에서는 단순히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의 이분법으로만 접근한다. 예컨대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나 퓨 리서치에서는 매년 미국에 대한 주요 국민들의 선호를 조사하고 있다. 퓨 리서치에 따르면 2008년 한국



주: 세로축: %, 가로축: 매우 냉담(-5), 그저 그렇다(0), 매우 우호적 (+5)
자료: Soft Power in Asia Survey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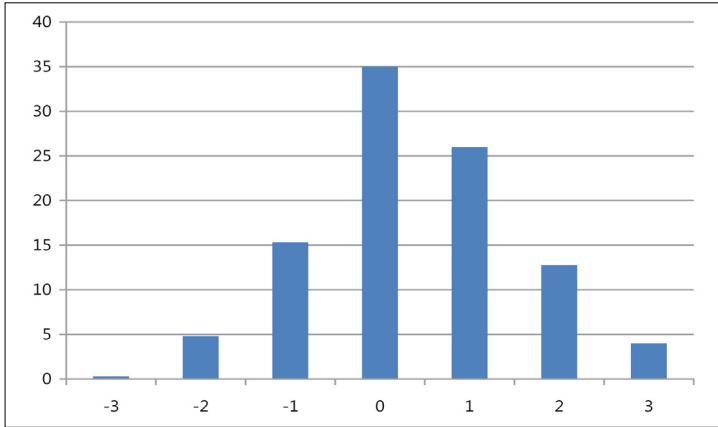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인의 대미 선호도

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70%였으며,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28%로 보고되었다(Pew Research).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감정적인 선호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림 1>에서 보면 한국인 중 미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은 불과 15.2%밖에 안 된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 감정적인 중립을 표명하는 사람이 24.8%나 된다.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매우 우호적인 의견은 10.3%밖에 안 되며 약간 우호적이라는 사람이 30.9%에 달한다. 이들의 태도를 매우 좋아한다는 10.3%의 사람이나 혹은 명시적으로 싫어한다고 응답하는 15.2%의 사람들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인 중 거의 절반은 미국에 대해 감정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설사 선호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태도를 감정적인 선호의 ‘유무’만으로 재단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가진 24.8%의 한국인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는 질문을 받을 때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좋아한다’ 혹은 ‘싫어한다’는 의견을 표명할 것이다. 위의 결과를 놓고 보면, 퓨 리서치의 조사처럼 한국인의 70%가 미국을 좋아한다고 보기보다는, 한국인의 다수는 ‘미국을 싫어하기보다는 좋아하는 편에 서있지만 미국에 대해 그리 싫어하지도 그리 좋아하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더 사실에 근접하다.

둘째로, 한국인이 미국을 신뢰하는 정도는 감정적인 선호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림 2>에서 보면 한국인 중 미국을 신뢰하는 사람이 전체의 43.1%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22.0%)보다 두 배나 많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 신뢰를 표명한 사람의 3분의 2는 약간의 신뢰를 보이는 정도이다. 신뢰의 정도가 높은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7.1%밖에 안 된다. 전체 응답자의 34.9%는 미국에 대해 신뢰하지도 불신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이는 앞서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미국을 매우 불신하는 사람의 비율(1.0%)은 미국을 매우 싫어 한다는 사람의 비율(4.2%)과 비슷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인은 미국에 대한 감정적 선호보다 신뢰의 측면에서 조금 더 부정적인 쪽에 기울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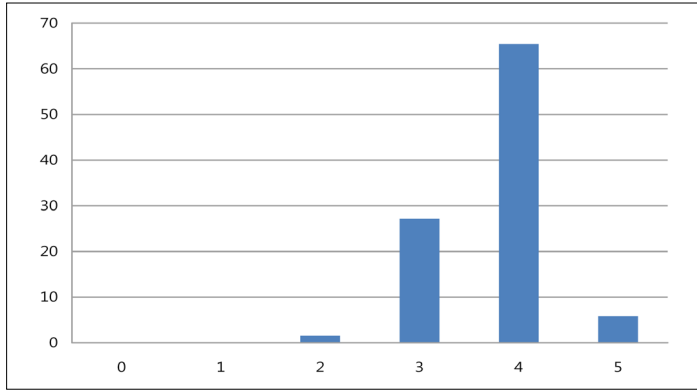
주: 세로축: %, 가로축: 매우 불신함(-3), 그저 그렇다(0), 매우 신뢰함(+3)
 자료: Soft Power in Asia Survey(2008).

〈그림 2〉 한국인의 대미 신뢰도

측정 대상과 지표는 다르지만 미국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신뢰를 조사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의철 외, 2003). 즉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신뢰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미국에 대해 감정적인 선호도와 미국을 신뢰하는 정도 간의 관계는 그리 밀접하지 않다. 통계적 상관관계 수치는 0.268로 유의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약하다. 즉 미국에 호의적인 사람이 미국을 신뢰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리 큰 연관은 없다. 한국인은 대체로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약하게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 크게 신뢰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는 근래의 한국인의 경험을 볼 때 뜻밖의 결과는 아니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태도, 한미 간의 무역 갈등, 주한 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조치, 최근 한국의 핵 재처리 능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압력, 등 한국인이 미국을 경계하게 하는 사건을 수시로 접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더 높을 것이므로, 국가 간의 신뢰라는 차원은 미국 한 나라에 대해서보다는 여러 나라에 대해서 비교할 때 더 유용할 것이다.

셋째, 한국인이 생각하는 미국의 필요성은 미국에 대한 선호나 미국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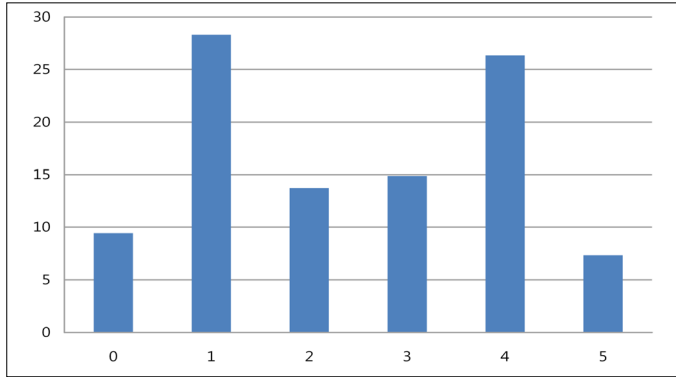


주: 세로축: %, 가로축: 필요 없음(0), 매우 필요함 (5)
 자료: Soft Power in Asia Survey (2008).

〈그림 3〉 한국인의 미국 필요성 인식

한 신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림 3〉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에 별로 필요하지 않거나 약간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면 미국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이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국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한국인이 대다수이다. 미국을 싫어하거나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미국을 좋아하거나 신뢰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미국은 한국에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한국인은 미국에 대해 감정적으로 약간의 호감만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 대해 크게 신뢰를 두고 있지 않으나, 미국은 한국의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과 한국을 대등한 관계에 두고 각자의 이익에 따라 거래를 하는 당사자라는 객관적 인식 방식이 한국인에게 널리 퍼져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한국인에게 미국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과 객관적인 이해에 대한 인식은 별개의 독립 차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넷째,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경험을 살펴보자. 대인관계에서 상대를 자주 경험하고 상대에 대해 잘 알수록 편협하지 않고 객관적인 태도를 갖는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일반론이 적용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경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한국인이 미국을 얼마나 경험하고 또 알고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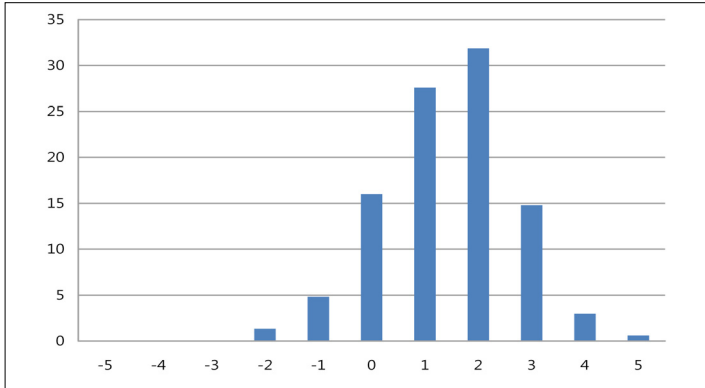
주: 세로축: %, 가로축: 전혀 없음(0), 매우 많음(5)
 자료: Soft Power in Asia Survey(2008).

〈그림 4〉 한국인의 미국 경험

움이 있다. 그러나 다수의 한국인은 미국에 여행한 일이 없으며 미국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미국의 대중문화에 노출된 정도 및 미국인과 접한 기회로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경험을 측정하는 것은 한국인의 현실을 반영한 지표이다.

〈그림 4〉에서 보면 한국인의 미국 경험 분포는 쌍봉형의 모습을 보인다. 즉 적게 경험한 사람과 많이 경험한 사람으로 나뉘며 중간층이 상대적으로 소원하다. 미국의 대중문화를 많이 접하고 영어 학습을 위해 미국인과 접할 기회가 많은 젊은 층과 미국의 대중문화를 그리 좋아하지 않으며 미국인과 접할 기회가 적은 장년층으로 양극화된 현실을 반영한다.

뒤에 나오는 〈표 1〉의 상관관계를 보면, 미국을 많이 경험하면 미국을 좋아할 가능성이 약간 높아지기는 하나 그리 크지는 않다. 미국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미국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이러한 반비례 관계 또한 그리 강하지 않다. 이는 아마도 연령 혹은 교육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뒤에 회귀분석에서 검토하듯이 젊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국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으며 신뢰감도 높지 않다. 이것으로 볼 때 미국을 많이 경험한다고 하여 반드시 친미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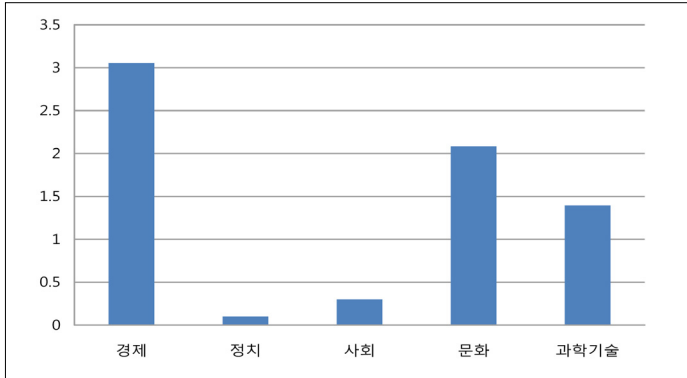
주: 세로축: %, 가로축: 매우 부정적(-5), 그저 그렇다(0), 매우 긍정적(+5)
 자료: Soft Power in Asia Survey(2008).

〈그림 5〉 한국인의 미국 평가

다섯째, 한국인은 미국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과거에는 미국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요즘에는 미국 사회나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 한국의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고 또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으로부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것이라면 다 좋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많지 않다.

〈그림 5〉에서 보면 한국인 중 약 4분의 3은 미국의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미국을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3.6%에 불과하다. 대다수는 미국의 수준이 약간 우수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수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6.1%에 불과하다. 앞에서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15.2%이며, 미국에 대해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사람이 24.8%였던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한국인이 미국에 대해 감정적으로 중립적이지만 미국의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필요성 인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은 미국의 수준에 대한 인식과 미국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은 별개의 독립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미국이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여도 분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림 6〉에서 보면 한국인은 미국의 경제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다



주: 세로축: 그저 그렇다(0), 매우 좋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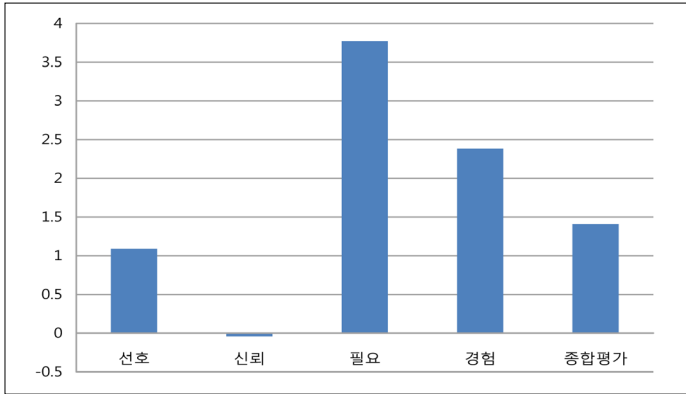
자료: Soft Power in Asia Survey(2008).

〈그림 6〉 분야별 미국의 수준 평가

음으로 미국의 문화와 과학기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미국의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은 아니지만 거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종주국으로 자부하고 있으나 한국인은 미국의 정치가 국민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의 이념을 강력히 표방하고 있으나 한국인은 미국 경제가 국민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으며 미국인의 교육수준 또한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개의 대미 태도 차원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⁸ 〈그림 7〉에서 보면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태도 차원 중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은 필요성이고, 가장 점수가 낮은 것은 신뢰이다. 즉 한국인은 미국이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을 상대적으로 크게 신뢰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에 혈맹관계를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발언과는 달리, 한국의 일반 사람들은 미국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적대적으로 불신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8. 신뢰 차원은 다른 차원과 대등한 비교를 위해 값의 범위를 (-3~+3)에서 (-5~+5)로 변환하였다.



주: 세로축: 매우 부정적(-5), 그저 그렇다(0), 매우 긍정적(+5)
 자료: Soft Power in Asia Survey(2008).

〈그림 7〉 한국인의 대미태도 차원 비교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처할 때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고 약간이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듯하다. 한국인은 미국에 대해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을 약간 좋아하며 미국의 수준도 한국보다 약간 높다고 생각한다.

2. 태도 차원들 상호간의 관계

다음의 〈표 2〉는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다섯 개의 태도 차원간의 상호 관계를 보여준다. 미국을 좋아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다른 모든 태도 차원과 긍정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즉 미국을 좋아하면 미국을 신뢰하고 미국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미국을 많이 경험하고 미국을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한편 미국에 대해 신뢰하면 미국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미국에 대해 경험이 많거나 미국을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이야기 하면, 미국에 대한 경험이 많거나 미국을 우수하게 평가한다고 하여 반드시 미국을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대한 경험과 미국에 대한 평가 사이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부의 관계($r=-.023$)이라는 것은

〈표 2〉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태도 차원간의 상관관계

	감정적 선호	신뢰	필요성	경험	평가	응답자 연령	응답자 학력	이념 성향
신뢰	.268**	1						
필요성	.312**	.284**	1					
경험	.068*	.020	.061	1				
평가	.103*	.024	.111*	-.023	1			
응답자 연령	.075*	.251**	.144**	-.339**	.130**	1		
응답자 학력	-.082**	-.072	-.050	.343**	-.049	-.513**	1	
이념 성향	.068*	.110*	.150**	-.162**	.008	.332**	-.182**	1

주: *. $p < 0.5$, **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Soft Power in Asia Survey(2008).

흥미롭다. 즉, 미국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을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응답자의 연령이 높으면 미국에 대한 대부분의 태도 차원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즉 연령이 높은 사람은 연령이 낮은 사람보다 미국을 좋아하며 미국을 신뢰하며 미국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미국을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연령이 높을수록 미국에 대한 경험은 적다. 반면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미국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내지 중립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 같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미국에 대한 경험은 많지만 미국을 덜 좋아한다. 교육 수준은 신뢰, 필요성, 평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지만, 세태도 변수와의 단순 상관계수가 모두 부정적이라는 것은 의미 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미국에 대해 신뢰감이나 필요성 인식이나 긍정적인 평가가 낮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이 높으면 미국에 대한 경험이 많지만, 미국에 대한 호감이나 신뢰나 우수하다는 평가가 반드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의 경우와 달리 가구 소득과 태도변수가 맺는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모두 정의 방향이다. 아마도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미국에 대한 호감이나 신뢰나 긍정적인 평가가 클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보수적인 이념 지향을 가질수록 미국에 대해 뚜렷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보수적인 사람은 진보

〈표 3〉 다섯 개의 태도 차원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감정적 선호	신뢰	필요성	경험	평가
남성	.23(1.71)	.85***(5.01)	.16**(4.78)	.27**(2.83)	.00(.07)
연령	-.12**(-4.19)	.08*(2.31)	-.01(-1.55)	-.01(-.79)	.05***(2.45)
교육수준	-.40(-.74)	-.01(-.14)	.00(.20)	.20***(5.62)	-.05(-1.25)
가구소득	.25*(2.22)	-.24(-1.62)	.03(1.24)	-.06(-.76)	.17*(1.96)
이념성향	-.05(.70)	.12(1.31)	-.00(-.68)	.00(.08)	-.02(-.96)
한나라당 ¹⁾	.76***(4.67)	.92***(4.57)	.21***(5.23)	.07(.76)	.00(.04)
기타정당 ¹⁾	-.09(-.54)	.76***(3.42)	-.02(-.54)	-.11(-.88)	-.11(-.79)
(연령) ²	.002***(4.83)	-.001(1.76)	.00*(2.18)	-.00(-.41)	-.00(-1.88)
(소득) ²	-.01(-1.56)	.02*(1.94)	-.00(-.62)	.00(1.13)	-.10(-1.61)
R ² =	.072	.163	.093	.156	.048

주: 수치는 b값이며 괄호는 t-value 임. * p<0.05, ** p<0.01에서 유의미함.

1) 더미 변수의 준거범주는 '지지정당 없음'임.

자료: Soft Power in Asia Survey(2008).

적인 사람보다 더 미국을 좋아하며, 미국에 신뢰를 보내며, 미국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에서는 미국에 대한 다섯 개의 태도 변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놓고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정치적 태도 변수를 설명 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각각의 태도 차원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도 차이가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다섯 개의 회귀분석의 계수를 비교하였다. 참고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미국에 대한 감정적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만이 이루어졌다. 연령과 교육은 미국에 대한 감정적 선호에 영향을 미치며, 북한과의 관계 등의 환경 변수도 미국에 대한 감정적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의철 외, 2003; Larson, et al., 2004; Carlson and Nelson, 2008; Jung, 2010).

먼저 감정적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면,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데 아래가 볼록한 포물선 모양이다. 즉 젊은 연령대에서 미국을 좋아하지만 연령이 높아지면서 선호도가 감소하다 어느 시점에서 다시 선호도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연령 변수나 (연령)² 변수가 비교적 큰 t 값을 갖는 것에서 연령이 미국에 대한 선호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다. 연령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나라당 지지 여부이다. 한나라당은 2008년 조사 당

시 집권 여당으로서 이 정당의 지지자는 다른 정당의 지지자보다 미국을 더 좋아한다. 반면 이념 성향은 대미 선호도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미국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예상과는 달리 교육 수준은 대미 선호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교육 수준과 감정적 선호 사이에는 부의 상관관계 ($r=-.082$)가 있으나, 동일한 연령과 소득이라면 학력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에 거부감을 가진 것은 아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미국에 더 신뢰를 두고, 미국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미국에 대한 경험이 많다. 이는 미국에 대한 선호도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없는 것과 대비된다. 시사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사회 경험이 더 많은 남성이 여성보다 미국을 감정적이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미국에 대한 감정적 선호의 경우와 달리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국에 대한 신뢰와 미국이 우수하다는 평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한편 다른 태도 변수의 경우 연령은 중요한 설명 변수이지만 미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미국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모든 연령대의 한국인은 한결같이 동의하는 것이다.

교육 수준은 경험 차원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하여 미국을 더 혹은 덜 신뢰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미국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에 대해 호감이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구 소득의 경우에도 태도 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미국을 신뢰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태도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반면 한나라당 지지자는 무당파와 비교해서 뚜렷하게 더 미국을 신뢰하며, 미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정적 선호, 신뢰, 필요성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한나라당지지의 회귀계수의 t 값이 다른 변수보다 월등하게 큰 것에서 한국 정치문화의 일면을 읽을 수 있다. 한국 사람에게 미국에 대한 태도는 성별, 연령, 교육, 소득, 등 어떤 요인보다도 한나라당 지

지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연구에서 미국에 대한 선호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교육 수준이 의미 있었으나 본 분석에서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한나라당지지 요인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가 이념성향 이외에 출신 지역에 따라 지지 성향이 나누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출신 지역을 통제할 수 있다면 한나라당 지지 여부가 대미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시도할 수 없었다.

다섯 개의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했을 때 미국에 대한 신뢰와 필요성은 비교적 함께 가는 경향이 엇보이는 반면, 이 두 개의 차원은 미국에 대한 감정적 선호나 경험 등과는 상이한 것을 확인한다. 또한 미국에 대한 경험과 평가는 미국에 대한 선호, 신뢰, 필요성과는 비교적 독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태도에서만 한나라당 지지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반면 교육 혹은 소득 수준이 영향을 미치며,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감정적인 선호의 경우와는 다른 유형을 보인다. 교육 혹은 소득이 높을수록 미국에 대한 경험이 크거나 혹은 미국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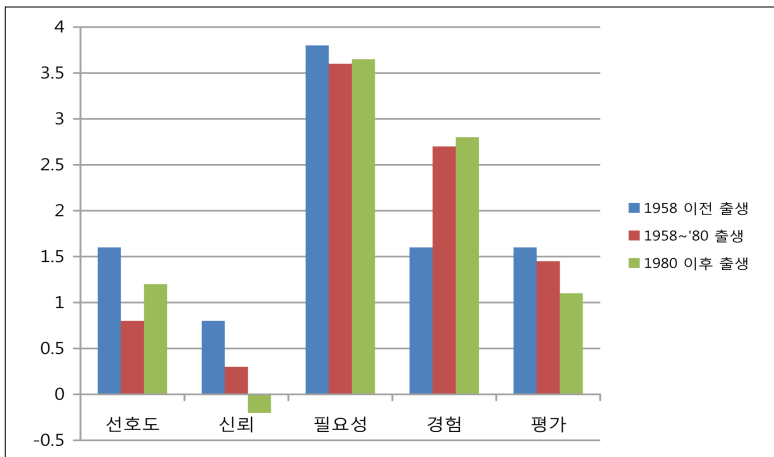
요컨대 다섯 개의 태도 차원을 각각 회귀 분석하여 비교했을 때,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 서로 상이한 것에서 다섯 개의 태도 차원은 각자 고유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3. 세대 간 태도의 변화

미국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을 출생 시기에 따라 세 개의 집단(코호트)으로 구분하여 각 차원에 대해 출생 집단 간 평균을 비교를 하였다. <그림 8>을 보면 세 개의 코호트는 각각의 태도 차원에 대해 상이한 유형의 변화를 보인다. 각 태도 차원별로 세 개의 코호트를 비교해 보자. 첫째, 미국에 대한 선호도를 비교할 때, 노년 세대가 가장 긍정적이며, 다음으로 젊은 세대이며, 중간 세대는 노년층이나 젊은 층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 1958~'80년에 출생한 중간 세대는 광주 항쟁과 민주화를 경험한

386세대이며 1990년대 이래 미국의 무역 압력과 '98년의 경제위기를 사회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이러한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나 혹은 일제로부터 해방과 한국동란의 쓰라림을 체험한 윗세대에 비해 미국에 대해 호감이 덜한 것은 당연히 예상된다. 이 그래프로 볼 때 미국에 대한 선호도는 원래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었으나, 중간 연령대인 386세대를 거치면서 감소했다가, 젊은 세대로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경향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대미 선호도는 과거 노년층의 그것에 비해 떨어진다.

둘째,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비교할 때, 근래에 출생할수록 일관되게 미국에 대한 신뢰가 줄어드는 것을 본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약간이지만 미국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신뢰를 측정하는 두 개의 지표, 즉 '미국이 장래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인가' 및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는가' 하는 측면에서 젊은 사람일수록 미국에 대한 신뢰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근래에 효순 미순 사건이나 광주병 파동에서 보듯이 미국의 부당한 행위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 젊은 사람



주: 세로축: 매우 부정적(-5), 그저 그렇다(0), 매우 긍정적(+5); 음수값은 해당 사례가 없어서 부분적으로만 표시됨.

자료: Soft Power in Asia Survey(2008).

〈그림 8〉 대미태도의 세대 간 비교

들이 앞장서서 규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이들의 낮은 신뢰를 반영한다.

셋째, 미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세 개의 코호트는 거의 일치한다. 출생 시기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미국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는 앞서 미국에 대한 선호나 신뢰가 코호트에 따라 차이가 났던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이들이 느끼는 미국에 대한 필요성의 정도는 다른 모든 태도 차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한국인의 머릿속에서 미국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넷째, 미국에 대한 경험과 인지의 차원은 1958년 이전에 출생한 노년층과 그 이전에 출생한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제 몇 년 후면 환갑이 되거나 더 나이가 많은 한국인들이 그 이후 출생한 세대보다 미국을 많이 접해 보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중간 세대와 1981년 이후 출생한 젊은 세대 간에 미국에 대한 경험의 차이는 별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아마도 미국에 대한 경험과 인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매우 거칠기 때문일 것이다. 근래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미국에 여행을 많이 가고 미국의 대중문화에도 중장년층보다 훨씬 많이 접하므로 분명 이들의 미국에 대한 경험과 인지 능력은 그 이전 세대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다섯째, 미국에 대한 평가의 차원을 보면 근래로 올수록 미국에 대한 평가가 엄격해지는 경향이 눈에 띈다. 노년층보다는 중간 세대가, 중간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가 미국에 대해 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근래의 세대로 내려올수록 미국의 강점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더 잘 알게 되었으므로 미국에 대한 평가가 덜 긍정적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표 4〉는 가장 나이가 많은 세대와 가장 젊은 세대 간의 격차를 대비하여 보여준다. 경험의 차원을 제외하고 다른 네 개의 태도 차원 모두에서 젊은 세대는 나이가 많은 세대보다 부정적인 쪽으로 이동하였다. 필요성의 차원에서는 두 세대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선호도, 신뢰, 경험, 평가의 차원에서 두 세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연령

〈표 4〉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사이의 대미 태도 차이

태도 차원	1980 이후 출생(A)	1958 이전 출생(B)	두 집단의 차이(A-B)	집단 차이 검증 t값	통계적 유의도(양측)
선호도	1.21	1.55	-0.34	-1.94	0.048
신뢰	-0.02	0.73	-0.75	-5.91	0.000
필요성	3.74	3.85	-0.11	-1.88	0.060
경험	2.83	1.62	1.21	9.08	0.000
평가	1.12	1.57	-0.45	-2.58	0.010

주: 수치는 각 태도 차원의 코호트 평균. 매우 부정적(-5), 매우 긍정적(+5).

자료: Soft Power in Asia Survey(2008).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근래로 오면서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태도는 과거보다 부정적인 쪽으로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근래에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미국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신뢰의 측면을 제외한다면 한국인은 여전히 미국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다만 긍정적인 정도가 과거에 비해 덜하며, 태도의 다양한 차원에 따라 변화의 정도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앞서 분석의 틀을 설명할 때 언급했듯이 코호트 간에 차이가 난다고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론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서 젊은 연령층이 노년층보다 미국에 대해 호감도가 높은 반면 한국의 경우 젊은 연령층이 노년층보다 호감도가 낮다면, 한국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태도에 변화가 실제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젊은 층으로 올수록 미국에 대해 호감도가 증가한 반면, 그와 반대로 한국에서는 특히 1980년대 이래 미국에 대해 예전보다 호감도가 줄어든 반면 중립적인 태도가 확산되고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미국에 대한 태도를 친미·반미의 인식틀로 파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대안을 찾아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미국에 대해 한국의 절대적인 의존 성향이 사라지고 한국인이 감정적으로 중립적으로 변하면서 친미·반미의 틀은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 대한 태도의 차원을 사회심리학의 대인적 태도 모델을 원용하여 감정적 선호, 신뢰, 필요성, 경험과 인지, 평가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다섯 가지 태도의 차원 구분은 대인 관계의 속성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미국 정부와 여론조사 기관이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지 여부에 크게 관심을 갖는 데에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타국의 국민이 미국을 좋아하는지 여부는 미국의 외교적 목적을 위해 반드시 관리해야 할 사안이다. 미국의 이익이 관계된 나라에서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미국 정부와 기업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

미국에 대해 의존적인 지위에 있는 나라의 경우 친미·반미의 정서가 큰 중요성을 갖지만, 근래의 한국과 같이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기대하는 나라의 경우 친미·반미의 인식틀은 정책적 중요성을 상실한다. 미국에 대해 감정적으로 중립적이면서 미국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경우 미국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프랑스는 서구 유럽에서 반미의 정서가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국에 대해 객관적 중립성을 가지고 미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프랑스는 미국과 외교적 혹은 경제적 관계에서 대등한 당사자로서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사안에 따라 협력과 대립을 전개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감정적인 선호는 둘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한국도 경제의 분야에서는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경제 분야에 관한한 사안에 따라 각자의 이익을 위해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구사한다. 북한과의 대치상태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군사외교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중립적인 외교 노선과 같이 제한적이거나 대등한 관계로 올라서려는 생각이 국민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근래에 주한미군에 관한 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 혹은 핵폐기물 재처리를 제한하는 미국과의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 등은 그러한 태도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태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접근이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다차원적인 인식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인식틀을 경험 자료에 적용해 봄으로서 과거 단일 차원으로만 접근했을 때와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듯이 신뢰, 필요성, 경험과 인지, 평가의 차원은 감정적 선호라는 단일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각의 태도 차원에 대해 분포를 비교하고, 태도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고, 세대 간 변화 유형을 비교한 결과, 관계의 속성을 반영하는 이 변수들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가 간에 다차원적인 태도를 파악한다는 이러한 아이디어는 아직 시론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가 간에 복합적 태도에 관해 이론적인 배경이나 개념화 작업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및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하여 인식틀을 적용하고 비교함으로써 개념의 유용성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 한 국민의 다른 나라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데에서 감정적인 선호라는 단일 개념 대신에 여러 개념을 복합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복잡함이라는 비용을 치를 만큼 가치 있는 시도인지에 대해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김진웅. 2010. 「1980년대 한국인의 대미인지의 성격」. 『역사교육논집』 45집. pp. 357-380.
- 김의철·박영신·오나라. 2003. 「한국 중학생, 대학생, 성인의 미국에 대한 인식: 반미감정의 심리 사회문화적 토대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권 1호. pp. 139-178.
- 심양섭. 2010. 「민주화 이후 한국 반미주의의 정치적 이념적 성격 연구」. 『통일정책연구』 19권 1호. pp. 79-106.
- 이강로. 2004. 「한국 내 반미주의의 성장과정 분석」. 『국제정치논총』 44집 4호. pp. 239-260.
- 이현송. 2004. 「미국 신문에 나타난 한국 및 한국인의 이미지」. 『미국학논집』 36권 3호. pp. 228-255.
- Cummings, Bruce. 2005. “The Structural Basis of “Anti-Americanism” in the Republic of Korea.” in David I. Steinberg, *Korean Attitudes Toward the United States: Changing Dynamics*. New York: Armonk. pp. 91-115.
- Carlson, Matthew and Travis Nelson. 2008. “Anti-Americanism in Asia? Factors Shaping International Perceptions of American Influenc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8: 303-324.
- Chen, Shengluo. 2004. “Two Americas, How Chinese College Students View the United States.” *Chinese Education and Society*, 36(6): 7-31.
- Gweon, Yong-Lib. 2004. “Changing Perception of America in South Korea: Transition or Transformation?” *Korea Journal*, Spring: 152-177.
- Joo, Eunwoo. 2004. “Under the Gaze of the American Other.” *Korea Journal*, Spring: 199-220.
- Jung, Heon Joo. 2010. “The Rise and Fall of Anti-American Sentiment in South Korea.” *Asian Survey*, 50(5): 946-64.
- Ham, Chaibong. 2005. “Anti-Americanism, Korean Style.” in David I. Steinberg, *Korean Attitudes Toward the United States: Changing Dynamics*. New York: Armonk. pp. 220-231.
- Hwang, Jong-yon. 2004. “Rethinking Korean Views on America: Beyond the Dichotomy of Pro- and Anti- Americanism.” *Korea Journal*, Spring: 103-108.
- Kim, Sunhyuk and Eun Sun Lee. 2011. ““Dynamics of Contentions” in Democratic Korea: The Role of Anti-Americanism.” *Korea Journal*, Summer: 229-255.
- Larson, Eric V., Norman D. Levin, Seonhae Baik, and Bogdan Savych. 2004. *Ambivalent Allies? A Study of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 the U.S. Rand Corporation*. Technical Report (TR-141-SRF).

- Lew Young Ick. 2004. "A Historical Overview of Korean Perceptions of the United States: Five Major Stereotypes." *Korea Journal*, Spring: 109-151.
- Maio, Gregory R. and Geoffrey Haddock. 2009. *The Psychology of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Thousands Oaks, CA: Sage.
- Moon, Chung-in. 2004. "Between Banmi(Anti-Americanism) and Sungmi(Worship of the United States), Dynamics of Changing U.S. Image in South Korea." in David I. Steinberg. *Korean Attitudes Toward the United States: Changing Dynamics*. New York: Armonk. pp. 141-152.
- Park, Kun Young. 2007. "The Evolution of Anti-Americanism in Korea: Policy implication for the United States." *Korea Journal*, Winter: 177-195.
- Pew Research Center. "Pew Global Attitude Project." <http://www.pewglobal.org/database/> (accessed on 1 March 2015).
- Pew Research Center Report. 2013. "American's Global Image remains more positive than China's." <http://www.pewglobal.org/files/2013/07/Pew-Research-Global-Attitudes-Project-Balance-of-Power-Report-FINAL-July-18-2013.pdf> (accessed on 1 March 2015).
- Putman, Robert. 2000. *Bowling Alone*. New York: Touchstone.
- Steinberg, David I. 2005. *Korean Attitudes Toward the United States: Changing Dynamics*. New York: Armonk.

Change in Korean's Attitudes toward the United States

Hyun-Song Lee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this study I demonstrate that the traditional frame of pro- versus anti-American approach is not appropriate for figuring out Korean's way of thinking towards the US. When Korea's economy has reached some level of affluence, her politics has been matured with democratization, and many Koreans have better knowledge of the US and Americans, Korean's way of thinking toward the US has changed accordingly. Nowadays Koreans tend to approach the US and Americans on equal terms and take more objective attitudes without much emotional involvement. I propose an alternative frame to capture such Korean's attitude.

The alternative frame is multi-dimensional, consisting of the following five aspects; emotional, trust, importance, experience & knowledge, and evaluation. These five aspects are somewhat related to each other, but conceptually have separate domains of reference in Koreans' mind. By using a survey dataset I measured Korean's attitude toward the US and Americans by applying the multidimensional frame. The analysis turns out that Koreans give the highest score to the aspect of importance. In contrast Koreans do not trust the US much. Koreans on average have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US, but the extent of likeness is minimal. It is surprising that the more experience they have about the US and Americans does not h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whether they like or trust the US. When the three cohorts of Koreans are compared on the five dimensions of attitude toward the US, they display lower degree of affirmative attitude on favor, trust, and evaluation among younger generation than the older one.

Keywords: Anti-American sentiment, anti-Americanism, United States, Korea-US relationship